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단풍,

하다들 떨어진 낙엽이 모여 수북하게 땅을 덮는다.
다가올 추위를 앞두고 긴긴 잠을 자기 위해
이부자리를 까는 걸까?
그 오묘한 자연의 색칠공부에 마음까지 일렁인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가 콧잔등을 스치고,
바스락대는 낙엽 위를 걷다 자주 걸음을 멈추게 되는 날.
소중한 이들과 색색으로 물든 숲길을
걷고 싶어지는 계절.
그렇게 우리 마음도 무르익는다.
가을이기 때문에.

글 정재림
사진 고인순

우리 마음으로 스며들다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 이사장 인사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대 이사장
심상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이 주는 위로와 힘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목원과 정원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자
수목원과 정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기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립정원문화원의 개원을
준비하며, 국민 여러분께 더욱 풍부한 자연 속
경험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목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정원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비전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자연이 주는 행복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거진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를 통해
국립정원문화원의 개원을 비롯한 수목원·정원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삶의 여유와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이자 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푸르고 건강한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기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립정원문화원의 개원을 준비하며,
국민 여러분께 더욱 풍부한
자연 속 경험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대 이사장

심상택



울긋불긋 단풍으로 무르익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가을

Evergreen Arboretum

글 양지예
사진 고인순

11월의 첫날, 백두대간의 중심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방문했다.
식물원이라 하면 보통 꽃을 보러 오는
관람객이 많아 비교적 가을에는
발길이 뜸해지곤 한다.
하지만 가을이 무르익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풍광은
울긋불긋 아름답다.
오색찬란한 나무 아래로 이어지는
산책길은 힐링 장소로 제격이다.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계절에 따라 다르게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가을을 만나본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식물원의 모습

봄과 여름에는 푸르른 잎과 탐스러운 꽃이 만발해 볼거리가 풍성하고, 가을에는 빨갛게 노랗게 물든 수목이 발길을 잡는 식물원. 식물원의 사계절은 그 나름으로 모두 아름답다. 11월에 접어든 국립한국자생식물원도 가을을 맞아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서 연구센터 창밖으로 봄, 여름과는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특히 노란색으로 물든 우리나라 고유종 히어리 나무와 새빨간 단풍나무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가을을 예쁘게 물들이고 있다. 꽃도 단풍도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방문해도 사시사철 조금씩 변화하는 식물원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들로만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으로, 멸종위기 식물을 비롯해 희귀식물,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이 보존되어 있다. 자생식물이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국내에 서식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식물들



을 뜻한다. 연구센터에서 출발해 ‘희귀식물원’, ‘특산식물원’을 거쳐 ‘비안의 언덕’, ‘모듬정원’ 등 9개의 전시원을 모두 산책하는 데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희귀식물원’은 멸종위기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 등 식물 유전자원으로 서의 가치가 높아 증식하고 보존해야 할 귀중한 식물을 전시한 공간이고, 이어지는 ‘특산식물원’은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360종의 한국 특산식물 중 91종을 수집해 보존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각의 전시원마다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식물들이 조성되어 있고 특별히 멸종위기 식물 23종을 지정받아 증식해 서식지 복원에 힘쓰고 있다.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1월 말에서 2월경 개화하는 복수초를 시작으로 식물원의 식물들은 하나둘 꽃을 피워 5월에서 한여름까지 만발한다. 가을에 들어서면서 현재는 울긋불긋 단풍잎을 이불 삼아 흙 속에서 겨울잠을 준비하며 다시 꽃을 피울 봄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산책하다 보면 ‘희귀식물원’과 ‘특산식물원’을 지나 군락지를 형성하는 야생화 재배단지 ‘비안의 언덕’에 다다른다. 식물원의 도로명을 따서 만든 ‘비안의 언덕’은 지금은 해제되었지만 한때 멸종위기 2급 식물이었던 갯쟁이꽃을 비롯해 벌개미취, 분홍바늘꽃, 꽃창포, 산수국 등이 만발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자랑거리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될 만큼 아름답다. 군락지에 23만 본의 식물을 재배해 앞으로도 아름다운 군락지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꽃이 만발해 아름답게 일렁이는 군락지의 모습은 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월에서 한여름에나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가을에는 무르익어 가는 나무에 맺힌 다양한 열매와 알록달록 단풍을 구경할 수 있으니 아쉬워하지 말자.

특히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산딸나무길’은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산딸나무길’은 식물원에서 제일 시원한 곳으로 한여름에는 식물원을 관람하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명당이기도 하다. 산딸나무에 하얀 꽃이 만발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눈길을 사로잡고, 가을에는 동글동글 귀여운 붉은색 열매가 달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다.

조금 더 깊은 숲길로 들어서면 우리 고유의 꽃과 나무들이 자라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비밀의 화원’과 신갈나무와 소나무가 자생하는 숲속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계절별로 만날 수 있는 ‘생태숲길’을 만날 수 있다. 백



노란 히어리 나무와
새빨간 단풍나무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가을을
예쁘게 물들이고 있다.

두대간 일대에서 유명한 금강송이 하늘 높이 쪽 뻗어 있고 그 밑에 산수국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7월에 절정을 이룬다. 식물원 입구에서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하기 때문에 조용히 산책할 수 있고 잔디밭이 있어서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다. 그 밖에도 기린초, 노루귀, 병아리꽃나무 등 동물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을 전시한 ‘동물이름 식물원’은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식물을 알아보기 좋은 공간이다. 골목 사이사이 미로처럼 조성된 길마다 나무와 꽃들이 심겨 있어 구석구석 살펴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시각각 바뀌는 식물원의 모습을 목도하려면 계절마다 방문해 보는 것을 권한다.

리뉴얼을 통해 관람객들과 더욱 가까워지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민간이 운영하다가 2021년 7월 산림청에 기증되어 국립식물원으로 전환되었다. 기증 이후 2023년부터 1년간의 리뉴얼을 통해 지난 7월 26일 재개장했다. 산림청 산하 국립식물원이 되면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과의 연계도 활발해졌다. 현재 리뉴얼 후 전시하고 있는 ‘모듬정원’은 일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지원을 받았다. ‘모듬정원’은 자생식물을 활용해 다양한 정원의 형태를 예시로 꾸며놓은 공간으로, ‘옹달샘정원’, ‘산나물정원’, ‘우리집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은 관상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원 디자인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용이나 식용의 가치도 있지만 최근에는 치유와 힐링의 개념으로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모듬정원’을 통해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원 디자인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산나물정원’에는 곰취, 참당귀, 뽕나무, 산미나리 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텃밭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감각에 맞는 정원의 형태로 바뀌어 재배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해 관람객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정원은 종합 예술로 어떤 식물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할지, 돌이나 소품들을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할지 다각도로 생각해야 한다. 보통 개인이 정원을 꾸밀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정보를 얻을 곳이 별로 없는데 이런 예시를 통해 나만의 정원을 꿈꾸는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교육 목적으로도 식물원 방문을 추천한다.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부채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재미있는 체험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식물마다 이름과 설명, 개화 시기 및 열매가 열리는 시기를 표기해 놓았고 QR코드를 통해서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20년이 넘는 식물원으로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어온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으로 수생식물,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리뉴얼하면서 사라진 온실도 2025년 12월 다시 개장할 예정이다.



뚜벅뚜벅, 백두대간을 알리는 한수정 사람들

나무가 좋아 내디딘 발걸음이 사방으로 가지를 뻗는다.
숲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나무 곁에서만 맛을 수 있는
빛과 바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즐거움이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오용선·박춘화 해설사는
“언제고 찾아오시면 더 재미난 숲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더 깊고 푸른 백두대간 자락으로
당신을 부르는 초대장이다.

글 윤진아 사진 정우철

Q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해설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박춘화 말 그대로 수목원의 꽃과 나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일이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39개 전시원에서 계절별로 다양한 수목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숲 해설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체험을 통해 숲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용선 해설과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우리 자생 식물을 알리는 교육은 물론이고 아로마 테라피나 우드버닝 같은 체험형 강의도 호응이 높아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치친 심신을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Q 완전한 가을로 접어든 요즘, 수목원의 일과가 궁금합니다.

오용선 가을 수목원은 봄, 여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가령 배초향의 씨앗은 유일하게 가을에만 볼 수 있죠. 오직 이 계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보물들을 놓치지 않고 방문객들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춘화 새벽에 서리가 내려 가로수 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시기라 좀 허전해도 늦가을만의 비경을 품은 숲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이야기거리가 넘쳐나고, 해설사의 입도 여전히 바빠지죠.(웃음) “저기서 얼마 전 지역 주민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기는 원래 전부 논이었는데, 땅을 복돋고 씨앗이 움터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알려드리면 다들 신기해하며 좋아하세요.

Q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오롯이 마주하고 계시는 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박춘화 모든 구간이 아름답지만, 요즘 가장 예쁜 곳은 만병초원 같아요. 만 가지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만병초는 대표적인 고산성 수목인데요. 진달래와 식물 만병초의 다양한 품종과 양치식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들국화와 가을꽃, 금강송이 펼쳐진 잔디 언덕도 요즘 가을을 담백 머금고 있어요. 그네에 앉아 문수산 정상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잡념이 싹 사라집니다.

백두대간 더 가까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전문 해설사 9명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보로, 전기 카트와 트램으로 수목원 곳곳을 누비며 흥미로운 숲 속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과 생태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목원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오용선 해설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박춘화 해설사

오용선 제가 좋아하는 구간은 꽃마숲공연장에서 숲정원에 이르는 산책로입니다. 꽃마숲공연장은 지역 주민이 결혼식도 하고, 숲속 공연도 열리는 아지트죠. 숲정원은 돌틈정원의 계곡 숲길을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숨겨진 정원인데,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고 집니다. 이름 모를 산새가 울고 잔잔한 햇살이 내리쬐는 나무 그늘에서 조용한 휴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Q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중 가장 자부하는 것이 있다면?

박춘화 ‘달려라! 어흥카트’ 꼭 타보셔야 합니다!(웃음) 친환경 전기카트로 수목원을 탐방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인데요. 최상단 알파인하우스부터 호랑이숲 등 30곳의 주요 전시원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90분간 둘러볼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엔 도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방문객들이 이용하셨는데, 수목원 곳곳을 누비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용선 ‘숲속을 걸어요!’를 추천합니다. 70분 이상 걸으며 백두대간의 산림 생태 이야기를 듣는 도보 해설 프로그램인데요. 이동하면서 만나는 식물을 관찰해 보는 체험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오랜 시간 숲을 지켜온 백두대간의 나무 이야기와 함께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 자연과 사람을 촘촘히 연결해 오면서 기억에 남는 방문객도 많을 것 같아요.

오용선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맨발 걷기 체험 중 발이 아파 못 견뎌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라고,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권하면서 끝까지 끌고 갔더니 점차 곧잘 걸으시더라고요. 다 걷고 난 뒤에는 발에 붓기가 싹 빠져 신발이 헐렁해졌다며 신기해하셨죠. 다음 날 다시 만났는데, 오랜만에 꿀잠을 잤다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박춘화 제 해설을 듣고 익명으로 칭찬을 남기신 이름 모를 방문객 덕분에 매일 초심을 되새기고 있어요. 제 가방에서 자꾸 뭐가 나온다고 ‘도라에몽 만능 주머니’ 같다고 하신 분도 기억 나는데요.(웃음) 수목원을 거닐다 발견한 예쁜 씨앗이나 열매를 색색의 집게로 장식해 선물로 드리곤 해요. 또, 해설 마무리 코스로 삼삼오오 걸터앉아 차를 마시는데요. 따뜻한 차를 담은 텀블러와 찻잔도 가방에 고이 담아 들고 다니죠. 계절마다 예쁜 나뭇잎을 주워 찻잔 받침도 매번 달리합니다. 오늘은 박태기나 무 잎을 깔았는데, 정말 예쁘죠?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해설사로서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은 무엇인가요?



오용선 관람객이 원하는 방향의 해설에 최대한 맞춰 수목원을 알리는 겁니다. 식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요. 아름다운 이 순간을 여한 없이 즐기고, 두고두고 보실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죠.

박춘화 표정과 말투에 신경을 많이 써요. 새로운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그곳만의 특별한 매력을 오롯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저는 말의 힘을 믿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잘 전달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말과 표정을 꾸준히 연습합니다.

☞ 해설을 요청하는 탐방객이 부쩍 늘었다던데, 나만의 비기(秘技)가 있다면?

오용선 ‘치유의 숲’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치유력을 주고 삶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숲이지만, 무작정 맹신하기보다는 바르게 알고 어울리는 법을 체득하도록 돕고 있어요. 오감을 통해 숲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 나무의 냄새, 계절에 따른 색의 변화 같은 걸 가만히 느껴보게 합니다. 깊이 호흡해 냄새를 맡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싱그러워진다고 감탄하시죠.

박춘화 흔히 만날 수 있는 풀이나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해 이야기를 나누고, 숲속 재료를 이용해 재미난 놀이도 합니다. 나뭇잎으로 강아지나 토끼를 만들 수도 있고, 뽕죽한 씨앗을 주워 고슴도치도 만들 수 있지요. 자연물 놀이의 장점은 숲에 떨어진 나뭇잎이나 열매를 활용해 마음껏 놀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용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야 해설을 듣는 방문객도 행복한 시간이 된다고 믿어요. 자연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과 행복을 함께할 수 있어 100% 만족하며 사는 만큼, 정년퇴직 후에도 쪽수목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본다면, 봉화의 명산인 옥석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박춘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더없이 행복해요. 저처럼 자연을 통해 위안받고, 희망의 끈을 다시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제가 오늘도 숲 해설에 나서는 이유죠. 방문객들이 숲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두박두박 걸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용선 해설사

봉화 문수산 자락에 펼쳐져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계절별로 수많은 자생 초목의 꽃과 열매를 보고 즐기면서 해발 500~600m의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혼자서 호젓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박춘화 해설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세계에서 둘째로 큰 수목원답게 마음잡고 보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규모가 방대합니다.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만큼, 백두산호랑이가 숲속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죠. 호랑이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숨겨진 보물이 아주 많으니, 놓치지 않고 찾아가시려면 해설 신청을 꼭 하십시오!(웃음)



매 순간 *Highlight*
우리의 영화를
시작해

국립세종수목원
윤석민 대리 ✦ 윤현주 대리 ✦ 김수정 주임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걷고 있는 세 사람, 파인더 속에선
저마다 가을 운치를 즐기는 데
한창이다. 카메라를 클로즈업해
가까워지면 분위기는 금세 바뀐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청춘영화가 펼쳐진다.
바로 이곳 미동산수목원에서.
글 정재림 사진 정우철

영화 같았던 우리의 만남!

미동산수목원의 가을과 꼭 닮은 옷차림새의 세 사람이 등장했다. 바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윤석민 대리, 윤현주 대리, 김수정 주임이다. 세 사람은 부서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지만 업무상 함께 협업하고 도우면서 서로를 알아갔다고.

“윤석민 대리님께서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내 메신저로 응원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당시에 많은 위로가 됐거든요. 윤현주 대리님과는 입사 초반에 재무회계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논의도 하며 동병상련을 느꼈고요.”

영화 속 히어로의 등장이 이러할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김수정 주임은 자주 만나지 못해도 언제든지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는 인연이 생겼다고 미소 지었다. 첫 만남에 이어 친분을 쌓게 된 계기도 있었을 터. 세 사람이 더욱 친밀해진 계기를 물었다.

“제가 기획한 사내 영화제에 두 분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김수정 주임님은 당시 본원에 계셨는데도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윤현주 대리님은 가족과 함께 영화제를 알차게 즐겨주셨죠.”

사내 영화제에서 경품도 타고, 먹거리도 나누면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했다면 세 사람은 한바탕 왁자지껄했다. 어느덧 세 사람은 청춘영화의 주인공들이 되어 데크길로 꾸며진 힐링코스 ‘열린마음나눔길’로 접어들었다. 턱이 없는 평지 형태의 산책길이 지상에서 5~8m 높이로 조성돼 나무들과 한층 가까워졌다. 따뜻한 커피와 포근한 옷차림 그리고 가을빛으로 뒤덮인 수목원의 자연 풍경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펼쳐놓은 듯한 모습이다.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들

“2021년 하반기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곳 미동산수목원에서 연수를 했어요. 그때 실습을 도와주셨던 숲해설가 선생님이 열정이 넘치셨어요. 가을에 실습해서 수목원 전체에 풍겼던 달큰한 계수나무 향과 하트 모양의 예쁜 잎들도 기억나고요.”

윤석민 대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일행을 이끌었다. 미동산수목원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부터 공립수목원 부문 전국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수목원 중심에 위치한 저수지 ‘상록담’을 배경으로 다 함께 기념사진도 남기며 가을 나들이를 톡톡



영화 속
히어로처럼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우리.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부지런히 행복의 순간을

수집하기.



미동산수목원,
추천 포인트!

윤석민 대리

수목원운영실

“상록담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
꼭 사진을 남겨보세요!”

김수정 주임

전시원실

“11월의 미동산수목원은
가을 풍경을 즐기기에 딱이에요.”

윤현주 대리

정원교육실

“메타세쿼이아원에 쌓인 단풍과
낙엽 용단을 꼭 걸어보세요.”

히 해본다. 상록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는 미동산 자락에 위치한 수목원 곳곳의 전나무와 밤나무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수목원에서 근무하면 계절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쁜 업무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미동산수목원은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올해 단풍 구경은 다 충족된 것 같아요.”

김수정 주임의 이야기에 윤현주 대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 영화제를 통해 환기되었던 것처럼 두 분과 함께 가을 수목원을 돌아보니 추억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세 사람은 붉게 물든 ‘단풍나무원’을 지나 ‘메타세쿼이아원’까지 가을 길 산책을 이어갔다. 낙엽이 쌓여 내딛는 발

걸음마다 용단을 밟는 듯 폭신하다. 나무에 기대기도 하고 수목원 곳곳에 비치된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며 계절이 준 선물 같은 시간을 충분히 누려본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건 뜻깊어요. 평소에 점심을 먹고 음악을 들으며 국립세종수목원 인근의 세종호수공원을 도는데요. 많은 분이 함께 누렸으면 해서 주변에 전파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여는 사내 영화제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했어요. 직원분들이 작게나마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부지런히 행복의 순간을 수집하는 것. 바로 윤석민 대리에게서 샘솟는 유쾌함의 원천이 아닐까. 앞으로도 각자 그려나갈 삶의 장면에서 이따금 서로의 조력자로 등장해 주길. 가을날의 동행이 멋진 한 장면으로 기억되길 바라본다.



지속 가능한 미래, 침엽수 보전으로 희망의 문을 열다!

지속 가능한 침엽수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지난 10월 30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지속 가능한 침엽수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구 온난화와 강수 패턴 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침엽수의 보전을 위해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아울러 침엽수 보전 및 복원 사업에 대한 국내의 성과를 교류하며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글 한울 사진 임근재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산 침엽수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숲의 구조와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를 비롯한 고산 지대의 침엽수들이 빠르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 생태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침엽수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수종으로 분류된다.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은 기온 상승에 따라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대표적인 고산식물들이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침엽수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보전 및 복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석학, 관계 부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회식에서 심상택 이사장은 "전 세계 침엽수종의 약 34%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 및 관리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침엽수 쇠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고산 침엽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Climate Crisis, A Sustainable Future for Endangered Conifers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

개회식 후,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순서는 고려대학교 손요한 교수가 기후변화, 산림, 생물다양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연구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손요한 교수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필요한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숲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적 기준은 몬트리올 프로세스에서 제시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생산성 유지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설명하며,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의미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임목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천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했을 때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임산물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 강연의 두 번째 순서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전위원회 침엽수 전문가 그룹 의장인 양용 교수(중국 난징임업대학)가 중국의 침엽수 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은 경제성이 높은 침엽수림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2021년부터 침엽수 보전을 국가 목표로 삼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용 교수는 “국가 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립공원을 49개, 자연보호구역을 2,700여 개, 국가 식물원을 200여 개로 늘리고 1,200여 종의 침엽수 종을 보전하고 있다. 일부 침엽수림에는 사람의 접근이 통제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 등 관련 인력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등 모든 활동이 정책 안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침엽수 보전을 위한 세계 차원의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엽수 보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필요

기조 연설 후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에든버러 왕립식물원, 오리건주립대학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원광대학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침엽수의 보전 현황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다루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산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IUCN 적색목록 평가 적용 방안과 기술 및 산림ICT(드론, LiDAR)를 활용한 기술적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 후에는 ‘침엽수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각국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지속 가능한 침엽수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침엽수 보전의 중요성과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기반이 마련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보전 전략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기반이 마련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보전 전략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춘화 대표는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 감성을 정원의 한 조각 한 조각에 녹여낸
정원 디자이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정원은
언제나 고요하면서도 따뜻하고, 식물들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된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자리한 그녀의 정원을 찾았다.
글 한울 사진 이승현

정원과 하나 되는 행복, 꿈같았던 삶은 계속된다

정원 디자이너,
아이디얼가든 임춘화 대표

정원 디자이너라는 선구자의 길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임춘화 대표의 정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정원을 마주한 순간, 절로 미소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그녀의 정원은 두 계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평온함을 자아냈다. 곳곳에 피어난 보라색 쑥부쟁이가 깊어져 가는 계절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여름이 유난히 길었던 올해는 식물에게 정말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위 탓에 구절초와 같은 가을꽃들이 제때 피지 않았고, 쑥부쟁이도 평소보다 한참 늦게 꽃을 피웠죠. 제 정원에는 쑥부쟁이가 정말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 쑥부쟁이가 정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정원과 그곳을 차지한 식물들에 대해 설명하는 임춘화 대표의 얼굴에는 씩부쟁이를 닮은 소박한 미소가 가득 퍼져 있었다. 정원에 있을 때, 그녀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마치 정원의 모든 식물과 하나가 된 듯, 그녀의 행복은 생동감이 넘친다. 임춘화 대표는 국내 정원 디자이너 1세대이자, 한국 정원 디자인의 선구자다. 그녀는 영국 리즈 메트로폴리탄대학(Leeds Metropolitan University)과 영국왕립원예협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 할로 카 가든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든 디자인 전문가 과정을 수학하고, 도시경관 생태조경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한국에 돌아와 ‘아이디얼 가든’을 창업하고, ‘가든디자이너스쿨’을 설립하여 정원 디자인 교육을 시작했다. 정원을 갖고 싶고, 꾸미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이후 한국 정원 디자인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루며, 우리나라 정원 디자인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정원

정원 디자이너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먼저,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해 부지의 규모와 토양, 환경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원의 스타일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연못, 화단, 쉼터 등 각 공간의 구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한다. 공간 디자인이 완료되면, 그에 맞는 시설물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식물로 정원을 완성하는 식재 디자인을 진행한다. 어떤 나무와 꽃을 심을지 결정되면 종자, 크기,



형태, 색상, 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들을 배치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예술적 감각, 공학적 지식, 인문학적 통찰력이 균형 있게 요구된다.

식물이 조화롭게 식재된 정원은 그 자체로 감상하는 이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임춘화 대표는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정원을 설계한다.

“정원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입니다.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식물이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결국 정원은 생명력을 잃게 되죠.”

임춘화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정원을 손수 꾸며오며 매 순간 큰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디자인한 정원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지상에 낙원을 선물한 듯한 기쁨이 밀려왔다. 그 정원 속에서 사람들이 기쁨과 위안을 얻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큰 행복을 느꼈다.

“그동안 작업한 모든 정원이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강화도의 ‘해오름힐링센터’ 정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경기도 위례의 푸르지오 정원은 특히 애정이 가는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정원이지만, 주민들이 마치 자기 집 정원처럼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곳에 사는 주민이 정원의 변화를 전해오는데, 그 또한 제게 큰 기쁨입니다.”

임춘화 대표는 공공정원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정원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직업적 가치라고도 생각했다. 이러한 신념은 그녀의 작업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원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느끼는 다양한 기쁨처럼, 사람들도 정원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느꼈으면 합니다. 정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같았던 지난 20년, 그녀의 열정은 계속된다!

임춘화 대표는 정원 디자이너로서 활동한 지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다. 그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셀프 안식년을 가졌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영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원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게 뭐냐’고 묻지 않습니다.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원을 꾸미고 싶어 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정원을 주제로 한 중요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

다. 정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입니다.”

임춘화 대표에게 지난 20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그녀는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저마다 중요한 관심사가 한두 가지씩은 있죠. 저에게는 그게 정원이었어요. 정원보다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원에 관심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 정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정원 디자이너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다른 일을 했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풀 림(林), 봄 춘(春), 꽃 화(花). 어쩌면 그녀의 이름 석 자는 정원 디자이너의 삶을 살아갈 운명이지 않았을까. 정원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 그리고 정원 속에서 자신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정원은 임춘화 대표에게 ‘꿈같은 삶’을 살게 해준 원천이었다.

정원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다. 정원은 오감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사람들의 감정이 얹히는 공간이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군가는 위로를 얻는다. 일상 속 바쁜 시간을 잠시 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며 치유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정원이다. 그래서 임춘화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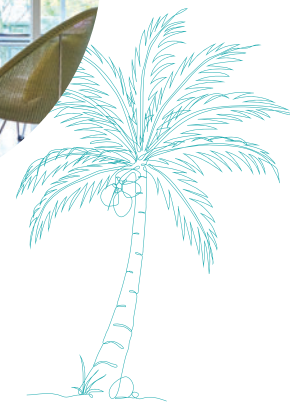
BOTANICAL CAFE ONSILRIUM

#민간정원 #온실 #야자수 #산책로

이런 곳에 카페가 있다고?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언덕을 오르다 보니 온실리움이라 적힌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돌담을 따라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정원 속에 그림처럼 자리 잡은 카페 등장. 온실리움은 어떤 곳일까?

글 정재림 사진 고인순



울산의 민간정원 1호!

온실리움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울산광역시 민간 정원 1호라는 사실이다. 또한 산림청이 국민투표를 실시해 뽑은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도 선정돼 당당히 정원으로서 이름을 알렸다. 온실리움은 '온실'과 전시관을 뜻하는 '-rium'이 합쳐진 이름이다. 가지산, 신불산 등 영남알프스를 전망할 수 있는 데다 관리사, 전통정원, 문화정원, 식물정원 등의 주제정원을 갖추고 있다. 제주에서 자생하는 제주 팽나무, 아그배나무, 제주 참꽃 등과 보전 가치가 높은 난대수종과 유럽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팜파스와 같은 그라스류까지 총 180여 종의 식물이 4,500여 주 식재되어 있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산책길과 카페 외부의 테라스 그리고 온실까지. 꽃과 나무 사이에서 차 한 잔을 즐기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는 곳이다. 온실 덕에 사계절 내내 푸르른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도동신리로 138 온실리움

🕒 운영 : 10:00~18:00(일요일 정기 휴무)

온실과 카페가 만났다

온실리움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남다른 분위기를 뽐내는 카페다. 마치 비밀의 정원 속에 자리 잡은 전시관을 떠올리게 한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면 유리 벽 너머로 건물 중앙에 때죽나무가 방문객을 반겨준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온 때죽나무란다. 입구 우측에는 카운터가 자리하고 있어 틀림없는 카페임을 알아챌 수 있다. 이곳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층계를 따라 온실 안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다. 따뜻한 온실 안은 키가 큰 야자수가 줄지어 있는데 바로 이 나무들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워싱턴야자'다. 온실리움에 식재된 워싱턴야자들은 수령이 약 25년으로 제주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 밖에도 호주 바오밥나무, 노란 열매가 탐스러운 하귤나무 등을 볼 수 있다. 열대식물들을 잘 생육하기 위해 온실 안 온도도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어 마치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 온실리움은 중심이 되는 온실 카페와 카페 외부의 정원, 건물 옥상의 루프탑까지. 볼거리도 많지만, 카페답게 다양한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고소한 라테 위에 수제말차크림이 올라간 시그니처 메뉴 '온실다움', 프랑산 고급 발로나 초콜릿을 올린 '온실속의 핫초(코)'도 추천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커피와 음료 메뉴를 맛볼 수 있고 간단한 브런치 메뉴도 있다.



춡고 어두워도 우리는 기어코 빛나

춡고 어두운 가을, 초겨울. 하지만 이런 때에도 곳곳하게
피어나는 식물들이 있다. 이맘때 식물원, 수목원을 둘러
보며 찾아볼 수 있는 반가운 얼굴들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김희진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

감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배수가
잘되는 사질 토양과 강한 햇빛에서 잘 자란다.
30~80cm로 자라며 10~11월에 황색 꽃이 핀다.
꽃은 말리거나 수증기로 쥘 후 한약재로 쓰인다.
산국에 비해 감국은 꽃이 등성등성 자라는 것이
특징이며 줄기가 녹색을 띠는 산국과 달리
감국은 붉은빛을 띠고 있다.

- 꽃말은? — 가을의 향기
- 어디서 봐요?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숲속책장, 100회 마라톤공원

갈대

Phragmites australis (Cav.) Trin. ex Steud.

여러해살이풀인 갈대는 높이가 1~3m까지 자란다.
습하고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며 물이 흐르는
곳보다는 고인 영역을 좋아한다. 번식력이 좋아
대개 군락을 이루고 있다. 9월에는 자주색의
꽃이삭이 줄기 끝에 원뿔모양의 꽃차례를 이루고
꽃이 피면 꽃가지가 아래로 처진다. 어린순은
식용으로, 땅속줄기와 잎은 약으로 쓰인다.

- 꽃말은? — 애정, 신의, 믿음
- 어디서 봐요? — 국립세종수목원
양서류관찰원, 습지형생태숲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Herbich)
Tzvelev var. *latiloba* (Maxim.) Kitam.

구절초는 속근성 여러해살이풀이다. 9월 9일에 꺾어서 말려
약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구절초라 이름 붙었다.
높은 지대의 능선 부위에서 군락을 형성하며 자라지만
흔히 들에서도 자란다. 50cm 정도의 높이에 얇은 달걀 모양이다.
꽃은 일반적으로 흰색이지만 붉은빛이 도는 경우도 있다.

- 꽃말은? — 어머니의 사랑
- 어디서 봐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화언덕, 백두대간자생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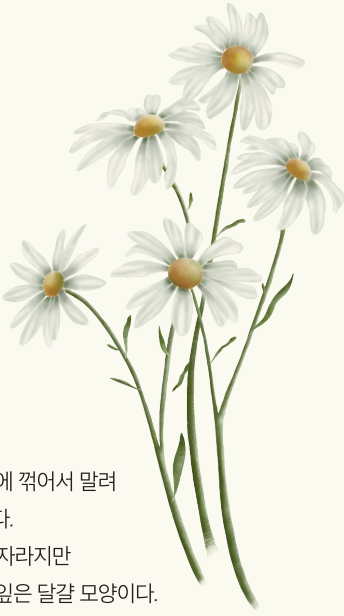


변산향유

Elsholtzia byconsanensis M.Kim

변산향유는 20~35cm 정도로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다. 전북 부안군 변산에서 처음
발견된 꽃향유라는 뜻이 이름에 담겼다. 해안가
절벽을 따라 바위 지대에서 자라는데 꽃은
10~11월에 붉은빛과 보라빛이 섞인 홍자색으로
핀다. 여러 개의 꽃이 이삭 모양으로 촘촘하게
모여 피는 게 특징이다. 잎은 갈라져 있지 않은
단엽으로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

- 꽃말은? — 겸손한 아름다움
- 어디서 봐요? — 국립세종수목원 야생화원



단양쑥부쟁이

Aster danyangensis Jae Y.Kim & G.Y.Chung

넋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로 첫해에는
15cm 정도 자라지만 이듬해에는 계속 자라
높이가 30~50cm까지 크다. 8~9월에는 지름 4cm 정도의
자줏빛 꽃이 핀다. 한강을 따라 분포하지만 개체 수가
매우 적어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꽃말은? — 공훈, 애국심
- 어디서 봐요?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희귀식물원



마가목

Sorbus commixta Hedl.

봄철에 부풀어 있는 새순이 '말의 어금니'와 닮았다고 이름 붙여진
마가목은 낙엽성 관목으로 10m까지 자란다. 해발 500~1,500m 높이의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며 열매는 공알 크기 정도의 사과 모양으로 10월에
붉게 익는다. 붉은 열매는 가을철 관상용으로 뛰어나고 햇볕에 잘 말려
약제로도 사용한다.

- 꽃말은? — 조심, 신중
- 어디서 봐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암석원

한라부추

Allium taquetii H.Lév. & Vaniot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고산성 식물인 한라부추는 표고
1,100m 이상의 산지 바위틈에서 자란다. 한라산 일원에 자생하고 있어
한라부추라 불린다. 부추 같은 잎이 3~4개 달리고 8~9월에 적자색
꽃이 피며 꽃대 끝에 3~30개가량의 꽃이 산형으로 달린다.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 꽃말은? — 영원한 사랑
- 어디서 봐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진달래원, 고산습원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봉선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인 노랑물봉선은
높이가 50cm 정도다. 이름처럼 노란색 꽃이 피며
물을 좋아하는 봉선화다. 습기가 많은 숲속 계곡 인근이나
넋가 주변에 무리 지어 자란다. 물봉선은 분홍색, 흰색,
노란색 세 종류가 있는데 노랑물봉선은 개체 수가
많지 않아 자주 보기 어렵다. 8~9월에 꽃이 핀다.

- 꽃말은? —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 어디서 봐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고산습원 숲길 부근



반려식물, 우리는 가족이었어

우리 곁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식물.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고, 햇빛과 바람도 쐬어주다 보면 파릇한 이파리가 하늘하늘 인사를 건넨다. 마음 주는 대로, 내 손길 닿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교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었어.

자료제공 조혜경 작가, 너머학교



안녕, 넌 어디에서 왔니?

유 기 식 물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는 일은 우리에게 흔한 일상. 흔하고 반복적인 풍경 속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어떤 것은 남겨진다. 아니, 가벼이 버려진다. 다 그런 거, 별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리를 잃고 밖으로 내몰린 식물의 일상은 무너지고 서서히 사라질 텐데...

식물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안 쓰는 플라스틱 물통을 찾아 물을 가득 채웠다. 그 안에 조심스럽게 담아 놓으니 힘없이 늘어진 이파리에 점점 생기가 돌았다.



때 되면 물 주고
창문 열어 환기 시키고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살피는
평범한 식물 보호자의 일상.
그 단순한 노동의 대가로
위로를 받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유기식물>

글·그림 조혜경, 펴낸 곳 원컴

어느 집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떠나면서 남기고 간 식물 화분 여러 개를 보았습니다. 책, 가구와 함께 폐기물 무더기에 버려져 있었죠. 식물이 집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기동물처럼 버려진 '유기식물' 이었습니다. 식물들이 왜 버려졌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사람과 사물의 관계, 소비되는 식물, 생명을 돌보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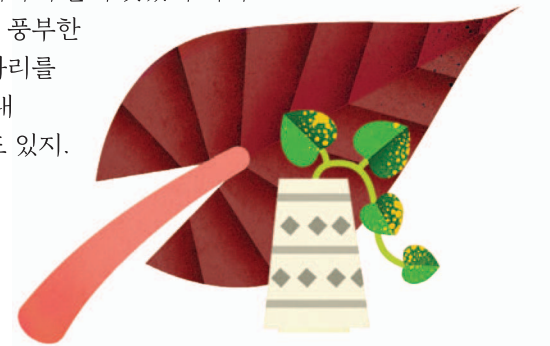


집에서 식물을 기르면
무엇이 좋을까?
꽤 보람 있는 취미인 데다가
울창한 숲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지.
건강에도 이롭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생겨.

다채롭고 다정한 반려식물 안내서

우 리 집 을 정 글 로

밭이 없더라도 허브와 샐러드용 채소를
집에서 기를 수 있어! 백리향(타임), 바질,
로즈메리는 창턱에서도 잘 자라니까
길러서 피자에 올려 맛있게 먹어.
비타민이 풍부한
근대 이파리를
일 년 내내
먹을 수도 있지.



집에서 기르는 식물은 빛, 온도, 습도 같은 조건이
천천히 변하면 잘 적응할 수 있어.
자연에서도 계절 변화에 적응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환경이 갑자기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좋지 않아.
자연에는 에어컨, 선풍기, 히터 같은 게 없으니까
집에서도 식물 가까이에 이런 걸 두지 마.

집에 새로 온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식물도 생명체라서 너나 강아지처럼
주변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우리 집을 정글로>

글 마이클 홀랜드, 그림 필립 조르다노, 펴낸 곳 너머학교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식물 키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즘입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어요. 가까이에서 식물을 보는 기쁨과 공기를 정화하고, 먹거리까지 주는 반려식물의 매력은 끝이 없지요. 이 책에는 반려식물 의 역사부터 종류와 특징, 반려식물을 잘 돌보는 요령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풍경 좋은 정원

자연 지형과 주변 경관이
장점인 곳

쉼이 있는 정원

정원을 거닐며 편하게
일 수 있는 곳

전통과 예술 정원

전통 정원과 예술이
함께 있는 곳

즐거는 정원

축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곳

색다른 정원

난대식물, 분재 등
특별한 식물이 있는 곳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선정결과 보러가기!



국민과 함께 뽑은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우리 곁에 있는 정원으로 떠나요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과 숨겨진 가치,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민간정원의 특별함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2024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 더욱 반가운 민간정원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정리 편집실

1 차분하고 조용한 섬 '힐링파크 쑥섬쑥섬'

섬으로 가는 뱃길과 원시림을 지나면 360도 파노라마 바다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자연경관을 만끽하고 싶다면 쑥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쑥섬길 43

2 일곱 계절 꽃이 함께 쓴 기록 '야생화일기'

정원을 거닐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을 찾는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삶과 정원, 일곱 계절 동안 식물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연주의 정원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1270-1

민간정원 30선, 모두 가보고 싶지만 고민된다면?

3 전통정원을 품은 고택 '쌍산재'

300년의 세월이 담긴 고택과 대나무길을 걸으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정원이다. 고택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어 전통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읍 장수길 3-2

4 함양과 와인의 만남 '하미양정원'

축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즐기는 정원으로
가보자. 한국형 산머루 와인 동굴로, 그 사이로 펼쳐진 정원이 특징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442-14

5 온실 속에서 커피 한 잔 '온실리움'

마치 해외에 온 것처럼 난대식물과 아열대식물 등 특별한 볼거리가 많은
정원이다. 온실카페와 영국식 정원을 거닐어 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도동신리로 138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독자 EVENT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를 보고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식지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세 번째 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 한 해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를 읽고 독자 후기를 남겨주신
20명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4년 12월 13일~27일

당첨 인원 당첨 인원 : 20명

당첨 선물 당첨 선물 : 편의점 상품권 1만 원권

선물 발송 선물 발송 : 2024년 12월 30일(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
※ 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

적라기 가든

식물의 탄생과 진화



2024.10.19. SAT
~ 2025.5.5. MON

사계절전시온실 특별전시온실



국립세종수목원
Sejong National Arboretum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웹진을 만나보세요.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는 친환경 인쇄공정으로 인쇄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을 실현합니다.

